

## 평양 관광자원의 변화에 관한 연구 북한 사회 변화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김한규(한국관광공사)

본 연구는 북한 평양지역 관광자원의 변화를 고찰하고 그 변화 배경을 북한 사회 전반의 변화와 연계하여 분석하고 있다. 우선 일반적인 관광자원 유형과 북한 학계의 관광자원 유형을 참고하여, 본 논문에 적용하고자 하는 관광자원 유형을 설정하였다. 자연 관광자원, 문화 관광자원, 체제 선전 관광자원, 사회시스템 관광자원, 예술 및 기타 사회관광자원, 쇼핑 및 식도락 관광자원, 기타 산업관광자원, 위락 관광자원으로 구분한 뒤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평양 관광자원을 위 유형에 따라 분류하여 각 시기별 변화를 고찰하였다. 그 결과, 평양지역 관광자원은 기본적으로 체제선전 관광자원이 어느 시기에서나 핵심적인 관광자원으로 활용되었으며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였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북한이 내세우는 평양지역 관광자원은 고정불변은 아니었다. 점차적으로 쇼핑 및 식도락 관광자원과 위락 관광자원의 활용도가 증가했으며 사회시스템 관광자원 또한 증가추세를 보였다. 특히 2010년대에는 이러한 변화가 눈에 띄게 확연히 증가했는데 그러한 변화의 배경으로는 무엇보다도 김정은 체제 등장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체제 정당성과 당위성을 보여주어 권력의 안정화를 도모해야 하는 ‘젊은 지도자’ 김정은은 자신만의 미래 비전을 보여주기 위해 애민정치, 친서민적 이미지 구축을 시도했고 그 일환으로 위락관광자원과 쇼핑 및 식도락 관광자원 인프

\* 이 글은 필자의 박사학위논문 “북한 외래관광 연구: 담당조직과 유치 구조 및 전략을 중심으로”(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의 168~172쪽 및 203~209쪽의 내용을 기본으로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힙니다.

라 구축에 적극 나섰다. 또한 이러한 인프라를 외래관광객 유치에 활용함으로써 ‘평양 시내를 돌아다니는’ 외국인도 다시 김정은 체제 안정에 기여하는 효과를 볼러올 수 있었을 것이다. 물론 북한과 같은 통제사회에서 외래관광객 유치는 양날의 칼일 수 있지만 김정은 체제에서는 이러한 상황은 다소 열린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쇼핑 및 식도락 관광자원과 위락 관광자원은 같은 관광자원 중에서도 더 많은 외화수입 창출이 가능하기에 다른 관광자원보다 강조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흥계층의 등장으로 이들을,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받아 안기 위한 수단으로 이러한 관광자원이 적극 구축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 관광자원의 변화는 주의 깊게 관찰해야 보이는 것일 수 있지만 단순히 관광차원에서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와 같이 북한 사회의 변화를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훌륭한 소재로 활용할 수 있다.

주제어: 북한 관광, 북한 외래관광, 평양 관광자원, 김정은 정권, 애민정치

## 1. 머리말

북한이 내세우는 관광자원의 유형이 변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 여러 분야에서의 변화가 눈에 띄지만 관광자원에서도 그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북한 외래관광은 1980년대 이후 본격화되었다는 점에서 외래관광의 역사는 30여 년이 흘렀지만 실질적인 관광자원의 변화는 2010년대 이후 확연하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관광업을 본격적으로 강조하면서 2010년대 이후 외래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활용하고 있는 관광자원은 쇼핑 및 식도락 관광자원, 위락관광자원, 사회시스템 관광자원의 성격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북한 관광소개 책자를 비롯해 북한이 실질적으

로 해외에 판매하고 있는 외래관광상품에 포함돼 있는 방문지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북한이 최근 강조해서 홍보하고 있거나 해외여행사들이 비중을 두고 소개하고 있는 관광자원은 문수물놀이장, 미림승마구락부, 경비행기, 지하철 및 평양전차 탑승, 마식령스키장 등이다. 물론 체제선전 관광자원과 자연관광자원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과거와 큰 차이가 없지만 점차 북한 관광일정에서 쇼핑 및 식도락 관광자원, 사회시스템 관광자원과 위락 관광자원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평양지역에서 두드러진다. 대부분 소개책자와 관광상품 코스의 변화는 평양 지역 관광자원의 변화가 주도하고 있다.<sup>1)</sup>

이는 북한 사회의 변화를 일정 정도 담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그 변화가 정치, 행정, 경제, 안보, 문화 등 북한 사회의 모든 기능이 집적돼 있는 수도 평양에서의 변화이기에 더욱 관심이 가지 않을 수 없다. 평양 관광자원의 변화를 통해서 북한 사회를 들여다볼 수 있는 셈이다. 북한이 강조하고 있는 관광자원을 통해서 북한 정권의 국내외의 정책 방향을 판단해 볼 수도 있으며 북한 사회의 실질적인 변화, 즉 북한 사회의 계층 변화와 경제 변화를 분석할 수 있는 지표로도 활용할 수 있다.

그간 평양지역은 물론이고 북한 관광자원 전반의 변화를 통시적인

---

1) 물론 평양 이외 지역에서도 북한관광자원의 변화를 엿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앞서 언급한 마식령스키장은 대표적인 위락관광자원이라 할 수 있으며 신의주 및 나진선봉, 칠보산 등 변경관광지역에서도 쇼핑 및 식도락 관광자원, 위락관광자원의 증가세가 보인다. 그러나 변화의 폭과 속도 측면에서 평양 중심 관광자원의 변화는 지방 관광자원의 그것보다 광범위하고 빠르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북한의 평양 중심 일반관광과 변경관광의 구조와 차이에 대해서는 김한규, “북한 외래관광 연구”(2015), 제3장을 참조할 수 있다.

관점에서 본격적으로 분석한 글은 많지 않다. 긴 시간의 흐름 속에서 관광자원의 변화를 관찰하기에는 자료의 제약이 많을뿐더러 관광자원 자체보다는 그에 대한 활용과 개발에 방점이 찍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 속에서도 관광자원에 대한 연구성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으로는 김영봉 외(2006)를 들 수 있는데, 북한의 관광자원 개발 여건을 평가하고 북한의 실정에 적합한 관광자원 개발 유형과 활용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sup>2)</sup> 또한 한국관광공사(2004)는 북한 관광자원을 지역별로 정리하여 일목요연하게 자원 현황을 드러내 보였다. 그러나 정리 그 이상으로 논의를 확장하지는 못하였고 북한 관광자원의 현황을 포괄적으로 조사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sup>3)</sup> 아울러 북한 외래관광상품을 분석한 글도 눈에 띄나 이 또한 통시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다 보니 외래관광상품의 변화를 통해 관광자원의 변화, 북한 사회의 변화까지 이어 분석하는 데는 한계를 보였다. 북한 외래관광상품을 분석한 논문으로는 김도영(2005), 신용석(2012) 등이 있다.<sup>4)</sup>

이는 북한 관광이 남북관광 중단 이후 관심의 영역에서 멀어졌던 데 기인하기도 하고 자료의 한계 때문이기도 하다. 본 논문은 이러한 자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두 가지 자료에 착안했다. 우선 주요 시기마다 북한이 발간하거나 방북관광을 취급하는 해외 여행사들이 관광객을 모객하기 위해 내놓은 관광안내책자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아울러 보완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주요 시점에 조사된 북한 외래

- 
- 2) 김영봉·이문원·조진철, 『북한관광자원의 효율적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북한 관광시범사업의 협력적 추진방안』(경기: 국토연구원, 2006).
  - 3) 한국관광공사, 『북한 관광자원』(서울: 한국관광공사, 2004).
  - 4) 김도영, “북한관광상품개발에 관한 연구: 관광자원을 중심으로,” 『호텔·리조트 연구』, 제4권 1호(2005); 신용석, 『남북관광 현황분석 및 정책대응방안』(서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2).

관광상품 소개 책자나 리플릿 등에 포함된 구체적인 관광코스 및 방문지, 언론보도 등에 포함된 평양 관광자원 등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관광자원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었다. 시기적으로는 북한이 외래관광객 유치를 본격 시작한 1980년대 말부터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 최근까지를 대상으로 그 변화를 분석했다. 시기별 관광안내책자로는 기본적으로 재일본 총련 기관지인 조선신보에서 발간한 『朝鮮觀光案内』(1990년), 북한 국가관광총국에서 발간한 『조선관광안내』(2002년) 및 『朝鮮旅遊』(2012년), 중국의 온라인 여행 플랫폼인 마펑위(馬蜂窩) 및 치용여우(窮游)에서 각각 발간한 『朝鮮』(2015년 및 2016년)을 활용하였다. 공간적으로는 앞서 밝혔듯이 북한 관광이 평양 중심으로 이뤄진다는 특성을 반영하여 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아울러 관광자원은 실제 외래관광상품에 이용되는 관광자원뿐만 아니라 실제 관광상품화에 이용되지 않는 북한이 소개하고 있는 관광자원을 가급적 망라하고자 했다.

북한 평양의 관광자원 변화를 고찰한 본 논문의 주요 구성을 간단히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관광 자원의 변화를 고찰하기에 앞서 관광자원을 유형에 따라 8가지로 분류하였다. 일반적인 분류 방식은 물론이고 북한 학계에서 분류하는 방식을 함께 검토한 뒤 북한 관광자원의 변화를 유의미하게 보여줄 수 있는 유형, 기준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시기별 북한 외래관광책자와 관광상품에서 제시하고 있는 평양 관광자원을 상기 기준에 따라 분류하였다. 이를 통해 유의미한 변화가 있는지 검증하였다. 이후에는 이러한 관광자원의 변화를 추동한 배경에 대해 2010년대 변화를 중심으로 해서 북한 사회 전반의 변화와 연계하여 분석하였다. 관광자원의 변화는 미미하고 관찰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나 이후 살펴보겠지만 북한 사회의 변화를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훌륭한 소재가 되고 있다.

북한을 둘러싼 국제정세는 언제나 복잡하고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북한의 외교전략과 미국의 동북아 전략, 중국의 대응 등에 있어 북한의 요소는 2017년 들어 가장 중요한 요소로 대두하고 있다. 북핵 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 화학무기 등의 문제는 국제 정세를 뒤흔들 수 있는 강력한 불안요소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이러한 행위를 유발한 배경은 차치하고라도 말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니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게 접근하고 다방면에서 이뤄져야 한다. 북한과 관련한 현재의 ‘직접적’인 문제만 다루다 보면 오히려 근본적인 변화를 놓칠 수 있고 그 ‘다음’에 대한 대비에 소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지점에서 북한의 외래관광과 그 변화를 다룬 본 논문의 의의를 적극적으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2. 관광자원의 분류

### 1) 일반적인 관광자원 분류

관광자원을 분류하기에 앞서 관광상품 구성 요소를 먼저 살펴보면, 관광상품 구성 요소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다양한 주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김천중 등은 자연자원, 문화자원, 관광시설, 서비스, 교통수단시설, 관광환경 등 6가지를 들고 있다.<sup>5)</sup> 조명환은 물적 설비,

---

5) 김천중·임화순, 『관광상품론: 관광상품의 기획과 마케팅 사례』(서울: 학문사, 1999), 14~15쪽. 자연자원은 ‘산악, 하천, 동식물 등 유형관광자원과 자연현상 등의 무형관광자원’, 문화자원은 ‘역사문화유적, 민속자원, 기념물 등’, 관광시설

서비스, 환대, 선택의 자유, 관여 등 다섯 가지를 구성요소로 제시한다.<sup>6)</sup> 이밖에 황창훈 등은 관광자원, 위락시설, 교통시설, 숙박시설, 기반시설, 지원시설과 서비스, 환대서비스, 정보시설과 서비스, 판매시설과 서비스 등 9가지를 관광상품 속성요소로 꼽았다.<sup>7)</sup>

이상의 구성요소를 봤을 때 관광상품을 구성하는 요소에 기본적으로 포함되는 것은 바로 관광대상이다. 김천중 등이 제시한 6가지 요소 가운데 자연자원, 문화자원, 관광시설은 관광 대상으로 묶을 수 있으며 물적 설비도 관광 대상으로 바꿔 말할 수 있다. 또한 황창훈 등이 제시한 것에서는 관광자원, 위락시설, 지원 시설과 서비스 등도 관광 대상의 범주에 해당한다.

한편 관광 대상이란 관광자원에 다름 아니다. 관광자원이란 관광의 주체인 관광객의 욕구·동기의 대상이며, 관광행동의 목표물이 되는 유·무형의 관광대상을 총칭하는 것이기 때문이다.<sup>8)</sup> 이런 정의에 따르면 관광상품이란 관광자원이 상품화의 과정을 거쳐 이뤄진 것이라 할 수 있다.

---

은 ‘숙박시설, 편익시설, 스포츠 시설 등’, 서비스는 ‘관광종사원 및 공무원의 자질, 물적 상품의 질 등’, 교통수단시설은 ‘교통수단의 유형’, 관광환경은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 친절성, 민족성, 역사성 등’을 의미한다.

- 6) 조명환, “관광상품의 구성요소에 관한 연구,” 『관광·레저연구』, 제8권 제1호 (1996), 88~91쪽. 물적 설비란 ‘자연자원, 호텔 등 고정자산, 이동설비, 물리적 환경조건’을, 서비스란 ‘물적 설비의 설계 및 제공을 보다 유용하게 하는 것’을, 환대란 ‘과업을 수행하는 태도 혹은 스타일’을, 선택의 자유란 ‘개인이 선택하도록 하여 여행 만족도를 높이는 것’을, 관여란 ‘신체적, 지적 그리고 정서적 참여’를 의미한다.
- 7) 황창훈·박명희, “관광상품의 매력성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경제경영연구』, 제8권 제1호(2007), 364쪽.
- 8) 한상현, “관광자원의 상품화,” 한국관광학회 엮음, 『관광학총론』(서울: 대왕사, 2009), 716쪽.

<표 1> 관광자원의 유형과 구성요소

유형		내용 및 구성요소
자연 관광자원	자연 관광자원	관광객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자연적인 관광대상으로 경관미 및 레크리에이션 기능을 갖춘 자원 산악, 구름, 호수, 하천, 계곡, 폭포, 평원, 산림, 해안, 지질, 동식물, 온천, 지형, 지질, 천문, 기상, 도서, 전망대, 자연현상
	문화 관광자원	민족문화의 유산으로 국민이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고 관광매력을 지닐 수 있는 자원. 문화재자원과 박물관자원으로 대별 고고학적 유적, 사적, 사찰, 건축물,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성역, 향토민속예술제, 박물관, 미술관, 조각
인문 관광자원	사회 관광자원	역사와 전통 및 과거의 생활상과 현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회 규범적인 자원 풍속, 행사, 생활, 예술, 교육, 종교, 사상, 철학, 음악, 무용, 스포츠, 국민성, 음식, 사회형태, 인정, 예절, 축제
	산업 관광자원	산업시설 대상의 관광자원, 공업관광·쇼핑관광·관광농업으로 구분 공업단지, 유통단지, 관광목장, 쇼핑센터, 백화점, 견본시, 전람회, 전시회, 농업, 생산공정, 상업
	위락 관광자원	실내외에서 위락적·스포츠적 흥미를 유도하며 행하는 관광자원 캠핑장, 수영장, 어린이대공원, 놀이시설, 레저타운, 수렵장, 낚시터, 카지노, 보트장, 카누장, 승마장, 나이트클럽, 경마장

자료: 안대희 외, 『관광자원론』, 제2판(서울: 대왕사, 2014), 30쪽 및 자원별 해당 내용 정리.

관광상품구성에서 중요한 요소인 이러한 관광자원은 관광행동특성, 자원입지, 자원의 가시성, 자원의 생성기원, 관광매력물 유형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분류가 가능하다.<sup>9)</sup> 학자들마다 다양한 기준을 사용하지만 일반적으로 형성원인을 기준으로 자연관광자원과 인문관광자원으로 분류하고 인문관광자원을 자원특성에 따라 문화적 관광자원, 사회적 관광자원, 산업적 관광자원으로 분류한다.<sup>10)</sup> 최근에는

9) 김병용, 『관광학원론』, 개정판(서울: 한울, 2012), 150~153쪽.

10) 이근, 『신관광자원론』(서울: 학문사, 1996), 36~38쪽. 이근은 이외에 자연자원과 인문자원이 복합되어 있는 ‘복합적 자원’을 별도로 취급하였으나 본 논문에서는 제외하였다; 정익준 외, 『관광학의 이해』(서울: 형설출판사, 2000),

는 이에 더해 위락관광자원을 포함시키는 경향이 있다.<sup>11)</sup> 물론 같은 분류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각 분류에 포함되는 관광자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또한 관광자원의 복합적이고 융합적인 성격으로 인해 관광자원을 정확하게 구분 짓는 것은 무리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표 1>과 같은 유형과 요소로 관광자원은 정리 가능하다.

## 2) 북한 관광자원 분류

북한에서는 김정은 정권 등장 이후 관광산업에 대해 부쩍 강조하면서 그 기초 단계로 관광자원에 대한 통계적 분류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실제 북한의 경제관련 연구이론지인 『경제연구』에서는 최근 들어 관련 논문들이 실리면서 북한이 관광산업과 관광자원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김인정은 이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관광활동의 원천과 관광업의 원천이라는 의미”를 다 같이 가지는 관광자원을, “관광객들을 끌어당겨 관광활동과 관광업에 리용할수 있는 자연과 사회의 모든 자원과 사물현상의 총체”로 규정하면서 관광자원이 여타 자원과 구별되는 고유한 특성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sup>12)</sup> 그 특성으로는 형태와 기능에서의 다양성, 지역적 성격, 이동의 제약, 이용 과정에서의 비소모성 등을 꼽고 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다음으로 박명순은 “관광자원은 다종다양하며 따라서 그에 대한 통계적연구를 위하여서는 여러가지 분류표식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

---

130~138쪽.

11) 김창곤 외, 『관광학원론』(서울: 대왕사, 2013), 264쪽.

12) 김인정, “관광자원의 본질과 특성,” 『경제연구』, 제3호(2015), 35~37쪽.

<표 2> 북한이 제시하고 있는 관광자원의 고유한 특성

관광자원의 고유한 특성		구분 및 내용
다양성	형태의 다양성	자연적, 사회적, 역사적, 현대적, 물질적
	기능의 다양성	인식적, 감상적, 보건적, 학술적
지역적 성격		관광자원은 같은 종류라고 해도 지역별로 차이를 가짐
이동의 제약		마음대로 위치를 옮길 수 없음
비소모성		여러 번 반복이용해도 없어지거나 유용성이 변하지 않음

자료: 김인정, “관광자원의 본질과 특성,” 36~37쪽 내용 정리.

<표 3> 북한이 제시하고 있는 관광자원의 분류

유형		내용 및 예시
자연관광자원		관광적 매력을 원천으로 하여 관광활동에 이용되거나 이용될 수 있는 자연대상과 현상
	관상적 관광자원	보면서 즐기는 대상, 경치요소/ 지형, 지질, 고원, 계곡, 폭포, 호수, 강하천, 해안, 반도, 섬, 해협
	보양적 관광자원	사람들의 신체의 양기를 돋구어주기 위한 대상, 자연치료요소/ 기후, 광천, 지형
사회문화관광자원		관광적 매력을 원천으로 하여 관광활동에 이용되거나 이용될 수 있는 사회문화적 대상과 현상
(구분 1)	물질적 관광자원	물질적 형태의 관광자원
	정신적 관광자원	정신적 형태의 관광자원
(구분 2)	혁명전통교양 대상	혁명전적지, 혁명사적, 혁명박물관, 혁명사적관
	기념비적 건축물	오늘의 시대상과 인류의 미적 감각이 아름답게 조화되어 먼 훗날에 가셔도 사랑하고 좋아하는 전인류적인 창조물
	역사문화 대상	인류가 역사적으로 이룩해 놓은 유형 및 무형문화재를 가운 데서 관광적 의의가 있는 대상과 현상
	공업 및 농업	공업 및 농업, 상업 시설물로 이용되면서도 관광적 의의가 있는 대상
	상업 대상	있는 대상

자료: 박명순, “관광자원개발리용에 대한 통계적연구에서 나서는 몇 가지 문제,” 39쪽 정리; 김광협, “관광통계자료의 분류,” 『경제연구』, 제3호(2016), 44쪽 정리.

다”면서 관광자원을 우선 크게 형성요인에 따라 자연관광자원과 사회문화관광자원으로 구분한다.<sup>13)</sup> 자연관광자원은 다시 이용하는 방식에 따라 관광적 관광자원과 보양적 관광자원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사회문화 관광자원은 의의에 따라 물질적 대상과 정신적 대상으로 나눈다. 사회문화 관광자원은 사회생활영역에 따라 세부 항목을 나누기도 한다. 도표로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 3) 본 논문의 관광자원 분류

북한의 관광자원 분류를 살펴보면 관광자원 간에 개념적으로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부분이 눈에 띈다. 자연관광자원을 세부적으로 관광상적 관광자원과 보양적 관광자원으로 구분하였으나 구분 지점이 뚜렷하지 않고 중첩된다. 또한 사회문화관광자원의 경우 물질적 관광자원과 정신적 관광자원으로 구분하였으나 세부 구분이 너무 개괄적이다. 이러한 구분이라면 관광자원의 유형과 특성을 구체적으로 드러내 보여주기가 쉽지 않다.

반면에 사회문화관광자원을 혁명전통교양 대상, 기념비적 건축물, 역사문화 대상, 공업 및 농업, 상업 대상 등으로 세분화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구분은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의 관광자원 특성을 일부 보여주는 구분이기도 하지만 사회적 관광자원을 명확히 보여주는 데는 한계를 보인다. 최근 들어 북한 관광에 나서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북한 사회 구조에 대한 호기심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북한 관광자원을 오롯이 보여주지 못하는 관광자원 분류라 할 수 있다.

북한의 관광자원 유형 분류가 이와 같이 너무 개괄적이거나 특정

---

13) 박명순, “관광자원개발리용에 대한 통계적연구에서 나서는 몇 가지 문제,” 『경제연구』, 제3호(2015), 39쪽. 박명순은 이밖에 ▲이용의 현실성 정도에 따라 현실적 관광자원과 잠재적 관광자원으로 ▲존재형식과 지리적 위치에 따라서도 관광자원을 구분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 4> 북한 관광자원 분류 기준

유형		내용
자연 관광자원		관광객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자연적인 관광대상으로 경관미 및 레크리에이션 기능을 갖춘 자원
문화 관광자원		민족문화의 유산으로 국민이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고 관광매력을 지닐 수 있는 자원. 문화재자원과 박물관자원 등
사회 관광자원	체제선전 관광자원	북한 체제 정당화와 선전용으로 제작 또는 구성된 건축물, 사상 및 철학 등 유무형의 관광자원
	사회시스템 관광자원	북한의 정치·경제·사회 운영 시스템 및 제도, 일상생활을 보여주는 유무형의 관광자원. 체제선전 차원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현상을 보여주교자 하는 관광자원
	예술 및 기타 관광자원	사회관광자원 가운데 체제선전 및 사회시스템 관광자원에 포함되지 않은 일체의 사회관광자원, 즉 풍속, 예술, 축제 등을 포함
산업 관광자원	쇼핑 및 식도락 관광자원	물품구매, 유통산업시설 및 식음료 부문 기반시설을 활용한 관광자원
	기타 산업관광자원	쇼핑 및 식도락 이외 공업, 농업 산업시설 등 관련 관광자원
위락 관광자원		실내외에서 유희적·스포츠적 흥미를 유도하며 행하는 관광자원

영역에서만 너무 세세하게 이뤄지는 것은 북한의 관광자원에 대한 연구가 아직 심화되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체제 특성상 체제 선전 목적의 관광자원을 의도적으로 부각하려 하다 보니 관광자원 분류도 한쪽에 치우쳐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북한 관광자원의 특징을 보다 뚜렷이 드러내 보여주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표 4>와 같이 유형 분류를 하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관광자원 분류형태를 차용하되 북한 관광자원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사회 관광자원과 산업 관광자원을 보다 세분화하였다.

### 3. 시기별 북한 평양 관광자원의 변화

시기별 구분은 기본적으로 외래관광 측면에서의 변화를 중심으로 해서 구분하였다. 북한 외래관광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1980년대, 국제관광박람회에 처음 참가하는 등 다양한 개방 조치를 시도하였던 1990년대, 아리랑 축전 등 신규 관광소재를 개발하고 남북관광이 본격화됐던 2000년대, 중국인 단체관광이 본격 시작된 2010년대 등으로 나누어 각 시기별 평양지역의 주요 관광자원을 고찰하였다.

#### 1) 1980년대

북한에 있어 1980년대는 1986년에 국가관광총국을 설립하는 등 외래관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이다. 외래관광업에 특화해서 관광자원을 개발한 것은 아니지만 북한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관광자원이 정립되고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시기라 할 수 있다.

1980년대 평양 관광자원을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기본적으로 1990년 발간된 북한 관광안내책자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아울러 여타 관광책자에서 나타난 관광자원의 건설연도를 통해 당시 건립된 관광자원을 보완하였으며 언론 보도 등에 나타난 관광자원 또한 추가하였다.

<표 5>에서 알 수 있듯이 1980년대 북한의 관광자원은 기본적으로 다른 일반적인 국가의 관광자원과 달리 체제선전 관광자원이 주요한 관광자원으로 자리하고 있다. 물론 관광자원 분류에서 체제선전 관광자원을 별도 항목으로 분리하였기에 더욱 도드라져 보이기도 하지만 실제 당시 운영되었던 관광상품을 살펴보면 체제선전 관광자원

<표 5> 1980년대 북한 평양지역 관광자원

유형	주요 관광자원	
자연 관광자원	대동강, 보통강, 모란봉, 능라도, 양각도, 만경봉, 용악산, 대성산, 봉화산, 죽섬	
문화 관광자원	조선중앙역사박물관, 조선민속박물관, 조선미술박물관, 대동문, 평양중, 연광정, 보통문, 태권도, 을밀대, 최승대, 부벽루, 청류정, 칠성문, 현무문, 평양성, 전금문, 영명사8각석불감, 홍복사7층석탑, 평양교회, 동의보감, 대성산성, 안학궁터, 동명왕릉, 강서3묘, 덕흥리 무덤, 고구려벽화고분, 황룡산성, 용곡서원, 승령전, 승인전, 법운암	
사회 관광자원	체제선전 관광자원	만수대대기념비, 조선혁명박물관, 천리마동상, 김일성광장, 당창건사적관,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개선문, 주체사상탑, 만경대생가, 만경대혁명사적관, 칠골혁명사적지, 대성산혁명열사릉, 봉화혁명사적지, 보통강개수공사기념탑, 3대혁명전사관, 우의탑, 해방탑, 전승혁명사적지
	사회시스템 관광자원	만수대의사당, 평양학생소년궁전, 인민대학습당, 인민문화궁전, 평양지하철, 김일성종합대학, 만경대학생소년궁전, 김책공업종합대학, 평양김원균음악대학, 평양제1중학교, 김성주사학교
	예술 및 기타 관광자원	만수대예술극장,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평양대극장, 보통강개수공사기념탑, 조선예술영화촬영소, 2.8문화회관, 봉화예술극장, 조선인민군교예극장(평양모란봉교예극장으로 불리기도 함), 5.1경기장, 김일성경기장, 양각도축구경기장, 평양국제문화회관, 청년중앙회관, 동평양대극장, 평양교예극장, 평양생면, 신선로, 만수대분수공원, 평양국제문화회관, 만수대창작사, 평양수예연구소, 모란봉극장, 학교 등의 학생사무공연, 국제문화회관
산업 관광자원	쇼핑 및 식도락 관광자원	옥류관, 청류관, 천리마거리, 안상택거리, 창광거리 식당가, 평양제일백화점, 평양제2백화점, 낙원백화점, 서평양백화점, 평양지하상점, 창광상점, 옷칠제품, 대성보석세공, 평양자기, 평양지수, 평양금은세공, 평양고려호텔 회전전문식당 등 호텔 내 식당, 민예전시관, 외문서점
	기타 산업 관광자원	평양역, 금릉동굴(터널), 평양산원, 김만유병원, 광복거리살림집, 봉화감문, 고려호텔 등 호텔, 평양친선병원
위락 관광자원	보통강유원지, 평양체육관, 빙상관, 창광원, 개선청년공원, 만경대유희장, 청춘거리체육촌, 대성산유원지(유희장), 중앙동물원, 중앙식물원, 와우도유원지, 능라도 유원지, 만경대물놀이장, 만경대소년단야영소, 남포체육촌, 대동강외교단회관, 창광원	

자료: 朝鮮觀光案內編輯部, 『朝鮮觀光案內』(東京: 朝鮮新報社, 1990) 및 각종 관광 리플릿 등을 바탕으로 저자 정리.

은 평양 관광에 있어 핵심 일정으로 포함돼 있다. 북한은 북한 전체 관광자원과 관광상품을 선전할 때 항상 “우리나라는 경치도 아름답고 땅속에 자원도 많아 예로부터 삼천리금수강산으로 세계에 그 이름이 널리 알려져있습니다.”<sup>14)</sup>라고 강조하면서 금강산, 백두산, 묘향산 등 자연 관광자원을 내세우지만 어느 관광안내책자, 상품소개책자나 모두 평양 관광에서만큼은 자연 자원에 앞서 체제선전 관광자원을 먼저 강조하고 있다.

변경관광을 제외한 모든 북한 관광상품은 평양에서 시작하여 평양에서 끝나는데 평양 시내 관광 구성은 주체사상탑, 만수대대기념비, 천리마 동상, 개선문, 만경대 생가, 대성산혁명열사릉 방문 등을 포함하고 있다. 북한 관광의 기본 상품인 3박4일이나 4박5일 상품, 묘향산 코스, 개성 코스, 남포 코스, 금강산 코스 내 평양 코스는 기본적으로 모두 동일하다. 관광자원 분류상에서는 1/n이지만 실제 관광상품에서 평양 관광의 상당수는 체제선전 관광자원으로 채워져 있다.

체제선전 관광자원을 둘러보고 나서도 평양 일정에 다소 여유가 있는 관광상품에는 그 밖에 문화관광자원과 사회 시스템 관광자원, 예술 및 기타 관광자원, 위락 관광자원이 포함돼 있다. △문화관광자원으로는 동명왕릉, △사회 시스템 관광자원으로는 평양지하철, 만경대 학생소년궁전, 인민대학습당, △예술 및 기타 관광자원으로는 만수대 창작사, △위락 관광자원으로는 대성산유원지, 동물원, 식물원, 만경대유회장, 창광원 등이 관광일정별로 일부 포함돼 있다. 이밖에 평양수예연구소에서 발간한 리플릿에는 외국 관광객들이 참관하는 사진을 게재해 놓고 있다. 아울러 싱가포르 Universal Travel 여행사의

---

14) 김인정, “관광자원의 본질과 특성,” 35쪽.

7일짜리 관광상품 코스에는 체육촌 방문과 평양 교예단 공연 등의 위락 관광자원도 포함돼 있다. 북한은 관광상품코스를 구성할 때 기본코스를 확정해 놓은 뒤 관광단체별로 신청하는 방문지가 있을 경우 사안별로 협의해서 허가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 방문한 모습으로 보인다.

## 2) 1990년대

1990년대 북한을 관광측면에서 살펴본다면 국제관광박람회에 처음 참가하고 일본과 대만 지역에서는 처음 전세기가 운항되었으며 태국 방콕, 마카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정기 항공노선이 개설되었다.<sup>15)</sup> 1996년에는 라진선봉지역 자유경제무역지대 관광규정을 처음 제정하고 실제 효과는 미미할지라도 외국인 관광개방지역을 확대하는 등 1990년대 북한은 외래관광사업에 보다 관심을 기울였다.

이러한 1990년대 북한 평양의 관광자원을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1990년대 북한 관광자원은 여러 성격의 관광자원이 소규모 형태이지만 지속해서 보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문화관광자원에서 북한 불교의 총본산이라고 일컬어지면서 ‘조선 불교도연맹 본부’<sup>16)</sup>인 광법사가 1990년 복원되었고 고구려 동명왕릉이 1994년에 개건, 새로 단장되었다. 아울러 같은 해 단군릉도 평양 인근 강동군에 새로이 조성되어 국보로 지정되었다.

---

15) 한편 북한은 1990년대에 일본 관광객 유치에 비교적 공을 들였는데 조성규 조선국제여행사 사장은 대만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1990년대 일본은 두 번째로 중요한 시장이었다고 강조한 바 있다(김한규, “북한 외래관광 연구,” 97쪽).

16) 한국관광공사, 『북한 관광자원』, 154쪽.

<표 6> 1990년대 북한 평양지역 관광자원

유형	주요 관광자원	
자연 관광자원	대동강, 보통강, 모란봉, 능라도, 양각도, 만경봉, 용악산, 대성산, 봉화산, 삭섬	
문화 관광자원	조선중앙역사박물관, 조선민속박물관, 조선미술박물관, 대동문, 평양중, 연광정, 보통문, 태권도, 을밀대, 최승대, 부벽루, 청류정, 칠성문, 현무문, 평양성, 전금문, 영명사8각석불감, 홍복사7층석탑, 평양교회, 동의보감, 대성산성, 안학궁터, 동명왕릉, 강서3묘, 덕흥리무덤, 고구려벽화고분, 황룡산성, 용곡서원, 승령전, 승인전, 법운암 / 광법사(1990년 원상복구), 단군릉(1994), 동명왕릉(1994 개건)	
사회 관광 자원	체제선전 관광자원	만수대대기념비, 조선혁명박물관, 천리마동상, 김일성광장, 당창건사적관,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개선문, 주체사상탑, 만경대생가, 만경대혁명사적관, 칠골혁명사적지, 대성산혁명열사릉, 봉화혁명사적지, 보통강개수공사기념탑, 3대혁명전시관, 우의탑, 해방탑, 전승혁명사적지 / 당창건기념탑(1995), 삭섬혁명사적지(1990),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1993), 푸에블로호(1999년경 대동강 전시)
	사회시스템 관광자원	만수대의사당, 평양학생소년궁전, 인민대학습당, 인민문화궁전, 평양지하철, 김일성종합대학, 만경대학생소년궁전, 김책공업종합대학, 평양김원균음악대학, 평양제1중학교, 김성주초학교
	예술 및 기타 관광자원	만수대예술극장,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평양대극장, 조선예술영화촬영소, 2.8문화회관(4.25문화회관으로 개칭(1995)), 봉화예술극장, 조선인민군교예극장(평양모란봉교예극장으로 불리기도 함), 5.1경기장, 김일성경기장, 양각도축구경기장, 평양국제영화회관, 청년중앙회관, 동평양대극장, 평양교예극장, 평양냉면, 신선로, 만수대분수공원, 평양국제문화회관, 만수대창작사, 평양수예연구소, 모란봉극장, 학교 등의 학생가무공연, 국제문화회관
산업 관광 자원	쇼핑 및 식도락 관광자원	옥류관, 청류관, 천리마거리, 안상택거리, 창광거리 식당가, 평양제일백화점, 평양제2백화점, 낙원백화점, 서평양백화점, 평양지하상점, 창광상점, 옷칠제품, 대성보석세공, 평양자기, 평양자수, 평양금은세공, 민족식당(국제문화회관 안에 있음), 평양고려호텔 회전전문식당 등 호텔 내 식당, 민예전시관, 외문서점 / 배식당(평양호), 대성수출품전시장
	기타 산업 관광자원	평양역, 금릉동굴(터널), 평양산원, 김만유병원, 광복거리살림집, 봉화갑문, 고려호텔 등 호텔, 국제통신센터, 평양친선병원
위락 관광자원	보통강유원지, 평양체육관, 빙상관, 창광원, 개선청년공원, 만경대유회장, 청춘거리체육촌, 대성산유원지(유회장), 중앙동물원, 중앙식물원, 아우도유원지, 능라도 유원지, 만경대물놀이장, 만경대소년단야영소, 남포체육촌, 대동강외교단회관, 창광원 / 평양블링관, 문수유회장, 평양오락장(양각도호텔 지하)	

주: 1990년대 새롭게 등장한 관광자원은 ‘/’(빗금) 표시 이후 고딕으로 별도 표기함.  
 자료: 국가관광총국, 『조선관광안내』(평양: 관광선전사, 2002) 및 각종 관광 리플렛 등을 바탕으로 저자 정리.

체제선전 관광자원도 비중 있게 새로 조성되거나 건립되었다. 1990년에는 축섭혁명사적지가 새로이 조성되어 해외동포들의 방북 시 참관코스로 활용되었다. 축섭혁명사적지는 1948년 김일성 주석이 참가했던 남북연석회의가 열린 곳을 기념한 것이다. 1995년에는 대동강구역에 조선로동당 창건 50돌을 기념해 당창건기념탑이 건설되었고 그에 앞서 1993년에는 한국전쟁 휴전 40주년을 기념해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이 보통강구역에 들어섰다. 1968년 나포한 미국 함정 푸에블로호도 1999년경 원산에서 대동강으로 옮겨져 주요 관광코스로 활용되기 시작했다. 이밖에 쇼핑 및 식도락 관광자원으로는 ‘배식당 <평양1호>’와 대성수출품전시장이 1990년대 처음 등장해 관광일정 가운데 식당과 쇼핑시설로 활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위탁 관광자원으로는 1994년 문수유회장 및 평양볼링관이 새로이 들어섰고 1995년 개관한 양각도호텔 지하에는 카지노와 사우나 등을 갖춘 평양오락장이 영업을 시작했다.

체제선전 관광자원은 1990년대에도 여전히 가장 중점적으로 포함된 관광자원이었다. 확충된 관광자원이 무엇인지 살펴보다라도 위에서 고찰하였듯이 비교적 체제선전 관광자원이 비중 있게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1990년대 중반 북한의 조선국제여행사에서 펴낸 관광리플릿에 나와 있는 관광일정을 살펴보다라도 평양지역 주요 관광코스로 주체사상탑, 개선문, 만수대대기념비, 천리마동상, 만경대생가, 대성산혁명열사릉 등 체제선전 관광자원을 꼽고 있다. 이외에 사회시스템 관광자원으로는 인민대학습당과 지하철, 교육기관 참관이, 예술 및 기타 관광자원으로는 만수대창작사 방문 등이 포함돼 있는데 이러한 코스는 기본적으로 1980년대 주요 관광상품코스와 별반 다르지 않다.

### 3) 2000년대

2000년대 북한의 관광산업에서는 무엇보다도 아리랑축전을 빼놓을 수 없다. 2002년 처음 시작된 아리랑축전은 2006년 수해로 인해 열리지 않은 것을 빼고는 2000년대 계속해서 개최되었다. 북한은 아리랑축전을 관광자원화하여 외래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세계관광기구(UNWTO)와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전국 관광일꾼 회의’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2000년대에는 1998년 시작되었던 남북관광이 본격화된 시점이기도 하다.

이러한 2000년대의 북한의 관광자원을 정리하면 <표 7>과 같다. 2000년대 관광자원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무엇보다도 앞서 언급하였듯이 예술 및 기타 관광자원 부분이다. 예술 및 기타 관광자원은 1990년대까지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2002년 아리랑 축전이 시작되면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다. 아리랑 축전 기간에는 대부분의 관광상품코스에 아리랑축전이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2000년대는 예술 및 기타 관광자원이 새로이 단장되는 시기이기도 했다. 1946년 건립 이후 1958년 재건되었던 모란봉극장은 2006년 다시 개건되어 현대식 시설을 갖추었고 1960년 건립됐던 평양대극장은 2009년 개건됐다. 또한 동평양대극장은 1989년 건립됐다가 2007년 새로이 단장되었다.

2000년대에는 위와 같이 예술 및 기타 관광자원이 눈에 띄기는 하지만 체제전선 관광자원은 어느 시기와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보완되고 추가됐다. 우선 조국통일3대헌장 기념탑이 2001년 새로이 들어섰고 김일성화김정일화전시관이 2002년 개관하였다. 2008년에는 전승혁명사적지에 모자이크 벽화를 세워 단장하기도 하였다. 또한 대동강변에 전시되어 있는 푸에블로호도 관광상품코스에 적극 활용되기

<표 7> 2000년대 북한 평양지역 관광자원

유형	주요 관광자원	
자연 관광자원	대동강, 보통강, 모란봉, 능라도, 양각도, 만경봉, 용악산, 대성산, 봉화산, 속섬	
문화 관광자원	조선중앙역사박물관, 조선민속박물관, 조선미술박물관, 대동문, 평양종, 연광정, 보통문, 태권도, 을밀대, 최승대, 부벽루, 청류정, 칠성문, 현무문, 평양성, 전금문, 영명사8각석불감, 홍복사7층석탑, 평양교회, 동의보감, 대성산성, 안학궁터, 동명왕릉, 강서3묘, 덕흥리무덤, 고구려벽화고분, 황룡산성, 용곡서원, 승령전, 승인전, 법운암 / 광범사(1990년 원상복구), 단군릉(1994), 동명왕릉(1994 개건)	
사회 관광자원	체제선전 관광자원	만수대대기념비, 조선혁명박물관, 천리마동상, 김일성광장, 당창건사적관,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개선문, 주체사상탑, 만경대생가, 만경대혁명사적관, 칠골혁명사적지, 대성산혁명명열사릉, 봉화혁명사적지, 보통강개수공사기념탑, 3대혁명전시관, 우의탑, 해방탑, 전승혁명사적지 / 당창건기념탑(1995), 속섬혁명사적지(1990),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1993), 푸에블로호(1999년경 대동강 전시) //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2001), 김일성화김정일화전시관(2002)
	사회시스템 관광자원	만수대의사당, 평양학생소년궁전, 인민대학습당, 인민문화궁전, 평양지하철, 김일성종합대학, 만경대학생소년궁전, 김책공업종합대학, 평양김원균음악대학, 평양제1중학교, 김성주중학교
	예술 및 기타 관광자원	만수대예술극장,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평양대극장, 조선예술영화촬영소, 2.8문화회관(4.25문화회관으로 개칭(1995)), 봉화예술극장, 조선인민군교예극장(평양모란봉교예극장으로 불리기도 함), 5.1경기장, 김일성경기장, 양각도축구경기장, 평양국제영화회관, 청년중앙회관, 동평양대극장, 평양교예극장, 평양방면, 신선로, 만수대분수공원, 평양국제문화회관, 만수대창작사, 평양수예연구소, 학교 등의 학생가무공원, 국제문화회관 // 모란봉극장(2006 개건), 평양대극장(2009 개건), 동평양대극장(2007 개건), 아리랑 축전(2002~2013)
산업 관광자원	쇼핑 및 식도락 관광자원	옥류관, 청류관, 천리마거리, 안상택거리, 창광거리 식당가, 평양제1백화점, 평양제2백화점, 낙원백화점, 서평양백화점, 평양지하상점, 창광상점, 옷칠제품, 대성보석세공, 평양자기, 평양자수, 평양금은세공, 민족식당(국제문화회관 안에 있음), 평양고려호텔 회전전문식당 등 호텔 내 식당, 민예전시관, 외문서점 / 배식당<평양1호>, 대성수출품전시장 // 월향전시관(특산품점), 통일거리시장(2003)
	기타 산업 관광자원	평양역, 금동동굴(터널), 평양산원, 김만유병원, 광복거리살림점, 봉화감문, 고려호텔 등 호텔, 국제통신센터, 평양친선병원
위락 관광자원	보통강유원지, 평양체육관, 빙상관, 창광원, 개선청년공원, 만경대유회장, 청춘거리체육촌, 대성산유원지(유회장), 중앙동물원, 중앙식물원, 와우도유원지, 능라도 유원지, 만경대물놀이장, 만경대소년단야영소, 남포체육촌, 대동강의교단회관, 창광원 / 평양볼링관, 문수유회장, 평양오락장	

주: 2000년대 새롭게 등장한 관광자원은 ‘//’(빗금) 표시 이후 고딕으로 별도 표기함.

자료: 國家觀光總局, 『朝鮮旅遊』(平壤: 旅遊宣傳社, 2012) 및 여행사 상품 리플릿 등을 바탕으로 저자 정리.

시작했다. 2000년대 관광자원의 변화에서 눈에 띄는 또 다른 대목은 쇼핑 및 식도락 관광자원 부분이다. 통일거리시장이 2003년 8월 생겼고 관광객들이 요청하면 방문을 허용했으며 특산품전인 월향전시관도 2006년 들어섰다.

실제 관광상품에 포함돼 있는 관광자원을 살펴보면 물론 체제선전 관광자원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일반적인 관광상품의 경우 관광기간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만수대대기념비, 천리마동상, 개선문, 김일성광장, 만경대생가, 김일성화전시장, 주체사상탑, 당창건기념탑, 대성산혁명열사릉, 우의탑, 푸에블로호 참관 등을 진행하게 된다. 또한 사회시스템 관광자원으로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평양지하철, 소년궁, 김일성종합대학 등을 둘러보게 되고 예술 및 기타 관광자원으로는 무엇보다도 아리랑축전 관람을 꼽을 수 있고 이밖에 소년궁내 공연 관람, 만수대 분수공원, 교예공연 등도 포함돼 있다.

관광자원의 다변화는 국적별로 다소 차이가 있다. 중국 관광객 대상 상품인 경우 일반적인 코스 위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구미주 등 국가 관광객 대상으로는 조금 더 체험이나 색다른 성격의 관광자원을 가미하는 경우가 눈에 띈다. 예를 들어 위의 <표 7>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대동강 보트에서 점심을 먹는 일정이나 용악산에서의 점심 피크닉 프로그램 등이 새로이 등장하기도 했다.

한편 북한상품의 특징 가운데 하나인데 특정 행사를 관광자원화하여 상품 구성을 많이 한다는 점이다. 이는 연중 구성된 상품보다 관광객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소재를 동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모객에 있어 보다 효과적이다. 물론 이러한 형태는 2000년대만의 특징은 아니고 북한 상품의 통시적인 특성이라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2000년대 관광자원의 변화를 살펴보면 기본적으로는 체제

선전 관광자원을 기본으로 하는 것은 다르지 않으나 과거보다는 위략적인 차원의 체험적인 관광자원이나 일반 북한 시민과의 접촉이 있을 수밖에 없는 관광자원을 서서히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즉 관광자원측면에서 그간 북한이 주력으로 삼아온 ‘보여주기’ 관광에서 어느 정도 ‘들어가 보기’ 관광을 서서히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지점이다.<sup>17)</sup>

#### 4) 2010년대

2010년대 북한의 외래관광사업은 매우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중국 단체관광객의 방북 관광이 2010년 4월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됐다.<sup>18)</sup> 이는 2008년 9월 중국이 북한을 중국 국민의 단체출경관광 목적지로 결정한 뒤 2009년 북한과 중국이 「중국 관광단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여행실시방안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데 따른 것이다.<sup>19)</sup> 이로 인해 2006년 이후 방북 관광을 중단했던 중국의 조치가 풀리면서 방북 관광객은 그간 10만 명 이하에서 정체 또는 하락 국면을 면치 못하다 증가세로 돌아선다. 아울러 서구관광객 등에 대

17) 김한규, “북한 외래관광 연구,” 103쪽.

18) 중국의 첫 번째 단체관광단은 2010년 4월 13일 출발하는 4박5일 일정으로 395명이 참가하였다. 당시 중국국가여유국 주산중(祝善忠) 부국장이 인솔하여 진행되었으며 상품가는 RMB5,280 내외였다.

19) 본 양해각서에 따라 중국 여행사 가운데 북한 비자 신청 가능 여행사가 지정되었다. 베이징지역에서는 여덟 개 여행사가 지정되었는데 중국국제여행사총사, 베이징중국국제여행사, 국려국제회의전람유한공사, 중국강회여행사, 중국부녀여행사, 중국여행사총사, 중국화평국제여행사, 중당국제여행사 등이다. 이들 지정 여행사만 북한 비자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관광객 모객은 여타 여행사도 가능하였다. 상기 첫 번째 단체상품 모객은 이들 여덟 개 여행사가 연합하여 모객하였다.

<표 8> 2010년대 북한 평양지역 관광자원

유형	주요 관광자원
자연 관광자원	대동강, 보통강, 모란봉, 능라도, 양각도, 만경봉, 용악산, 대성산, 봉화산, 쑥섬
문화 관광자원	조선중앙역사박물관, 조선민속박물관, 조선미술박물관, 대동문, 평양종, 연광정, 보통문, 태권도, 을밀대, 최승대, 부벽루, 청류정, 칠성문, 현무문, 평양성, 전금문, 영명사8각석불감, 홍복사7층석탑, 평양교회, 동의보감, 대성산성, 안학궁터, 동명왕릉, 강서3묘, 덕흥리무덤, 고구려벽화고분, 황룡산성, 용곡서원, 승령전, 승인전, 법운암 / 광법사(1990 원상복구), 단군릉(1994), 동명왕릉(1994 개건) // 조선우표박물관(2012)
체제선전 관광자원	만수대대기념비, 조선혁명박물관, 천리마동상, 김일성광장, 당장건설사적관,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개신문, 주체사상탑, 만경대생가, 만경대혁명사적관, 칠골혁명사적지, 대성산혁명열사릉, 봉화혁명사적지, 보통강개수공사기념탑, 3대혁명전시관, 조중우의탑, 해방탑, 전승혁명사적지 / 당장건기념탑(1995), 쑥섬혁명사적지(1990),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1993), 푸에블로호(1999년경 대동강 전시) //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2001), 김일성화강정일화전시관(2002) // 금수산태양궁전(2012 개칭),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2013년 재개관), 푸에블로호(2013년 보통강변으로 이전)
사회 관광자원	만수대의사당, 평양학생소년궁전, 인민대학습당, 인민문화궁전, 평양지하철, 김일성종합대학, 만경대학생소년궁전, 김책공업종합대학, 평양김원균음악대학, 평양제1중학교, 김성주소학교 // 평양국제축구학교(2013), 농장체험(장천남새전업협동농장), 평양지하철(과거 몇 개 역만 개방했으나 2014년 일부 여행사 상품 대상 1,2호선 전체 공개)
예술 및 기타 관광자원	만수대예술극장,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평양대극장, 조선예술영화촬영소, 2.8문화회관(4.25문화회관으로 개칭(1995)), 봉화예술극장, 조선인민군교예극장(평양모란봉교예극장으로 불리기도 함), 5.1경기장, 김일성경기장, 양각도축구경기장, 평양국제영화회관, 청년중앙회관, 동평양대극장, 평양교예극장, 평양냉면, 신선로, 만수대분수공원, 평양국제문화회관, 만수대창작사, 평양수예연구소학교 등의 학생가무공연, 국제문화회관 // 모란봉극장(2006 개건), 평양대극장(2009 개건), 동평양대극장(2007 개건), 아리랑축전(2002~2013) // 평양교예극장(2011 개건)
산업 관광자원	옥류관, 청류관, 천리마거리, 안상택거리, 창광거리 식당가, 평양제일백화점(1982), 평양제2백화점, 낙원백화점, 서평양백화점, 평양지하상점(1987), 창광상점, 옷칠제품, 대성보석세공, 평양자기, 평양자수, 평양금은세공, 민족식당(국제문화회관 안에 있음), 평양고려호텔 회전전문식당 등 호텔 내 식당, 민예전시관, 외문서점 / 배식당<평양1호>, 대성수출품전시장 // 월향전시관(특산품점), 통일거리시장 // 해당화관(최고급 복합상업시설), 해맞이식당(최고급식당), 무지개유람선, 만수교청량음료점(2012 리모델링), 경흥관 맥주집(2010년대 들어 관광상품에 본격 등장), 광복지구 상업중심(2012 개업, 구 광복백화점(1991)), 해맞이슈퍼마켓(2012), 조선우표박물관(2012), 련광차집(2011)

기타 산업 관광자원	평양역, 금릉동굴(터널), 평양산원, 김만유병원, 광복거리살림집, 봉화갑문, 고려호텔 등 호텔, 국제통신센터, 평양친선병원
위락 관광자원	보통강유원지, 평양체육관, 빙상관, 창광원, 개선청년공원, 만경대유회장, 청춘거리체육촌, 대성산유원지(유회장), 중앙동물원, 중앙식물원, 와우도유원지, 능라도 유원지, 만경대물놀이장, 만경대소년단야영소, 남포체육촌, 대동강의교단회관, 창광원 / 평양볼링관, 문수유회장, 평양오락장 /// 개선청년공원(1984, 2010년 개건), 중앙동물원(1959, 2016 제2단계 공사 마무리) 평양민속공원(2012 준공, 2016 철거), 만경대상 국제마라톤대회(1981, 2014년부터 외국인 참여 가능), 경비행기 관광(2015), 미림승마구락부(2013), 평양 자전거 체험(2015), 메아리사격관(1995, 2014 리모델링), 문수물놀이장(2013), 만경대물놀이장(1984, 2011년 리모델링)

주: 2010년대 새롭게 등장한 관광자원은 ‘//’(빛금) 표시 이후 고딕으로 별도 표기함.

자료: 窮游, 『朝鮮』(北京: 窮游, 2016) 및 馬蜂窩, 『朝鮮』(北京: 馬蜂窩, 2015), 여행사 상품 등을 바탕으로 저자 정리(두 자료는 책자가 아닌 온라인 파일 형태로 각각의 온라인 플랫폼에 게재돼 있으며 서지 내용은 저자가 편의로 정리한 것임).

한 관광개방 폭도 확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2010년대 북한관광자원의 현황을 정리하면 <표 8>과 같다. 북한 관광자원의 핵심요소인 체제선전 관광자원은 2010년대에도 지속해서 보완되었다. 우선 금수산기념궁전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2012년 금수산태양궁전으로 개칭되었다.<sup>20)</sup> 1953년 처음 건립된 뒤 1974년 재개장했던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도 정전협정 60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보수를 거쳐 2013년 재개관했다. 이와 함께 체제선전 자원으로 적극 활용해왔던 대동강변에 있던 푸에블로호도 승리기념관 야외전시장인 보통강변으로 같은 해 이전하였다.

그러나 2010년대 관광자원에서 핵심적인 변화는 쇼핑 및 식도락 관광자원과 위락 관광자원, 사회시스템 관광자원 부분에서 발생했다. 우선 쇼핑 및 식도락 관광자원을 살펴보면 고급 복합상업시설과 고급

20) 당초 금수산의사당이었던 이곳은 1977년 김일성 주석 65회 생일 기념으로 준공된 뒤 그가 사망한 1994년 금수산기념궁전으로 바뀌면서 대대적으로 확장된 바 있다.

식당이 대대적으로 들어섰다. 2012년엔 최고급 식당인 해맞이 식당과 판매시설인 해맞이슈퍼마켓이 창진거리에서 개업했다.<sup>21)</sup> 이듬해인 2013년에는 최고급 복합상업시설인 해당화관이 들어섰다. ‘종합봉사선’인 무지개유람선도 2015년 영업을 시작했는데 유람선 내에는 다양한 식당과 상점이 위치해 있다. 유람선 이름은 해맞이식당과 마찬가지로 김정은 위원장이 붙였고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 빵과 커피, 아이스크림, 맥주 등을 판매하는 보통강변의 만수교청량음료점은 2012년 리모델링을 거쳐 외국관광객을 받고 있다.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하기 전 마지막 현지도한 곳으로 유명한 광복지구상업증심은 1991년 개업한 광복백화점이 2012년 리모델링을 거쳐 바뀐 것이다. 경흥관 맥주집은 1988년에 생기긴 했으나 2010년대 들어 관광상품에 본격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밖에 실제 서구인 대상 여행사 관광상품을 들여다보면 경흥관 맥주집 이외에도 다양한 맥주 바를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0년대 관광상품에서 주목되는 것은 ‘런광차집’(비엔나 커피숍) 등의 커피집이 주요 코스로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sup>22)</sup> 아울러 평양 미래과학자 거리에 있는 이탈리아 피자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는 옵션도 제시되어 있기도 하다. 2012년에는 조선우표박물관도 개관했는데 각종 우표를 구매할 수 있다.

위락관광자원도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확충되고 있다. 우선 물리적

---

21) 김정은 위원장은 2012년 당시 개업을 앞둔 해맞이식당과 해맞이슈퍼마켓을 방문해 ‘100점, 만점’이라고 대 만찬을 표시했다고 북한 언론이 보도한 바 있다. 식당 이름은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지었다고 한다(“북 김정은, 경제분야 시찰 재개… 해맞이식당 찾아 ‘100점, 만점,’” 『연합뉴스』, 2012년 9월 1일).

22) 실제 고려투어스 상품을 보면 2011년 10월 김일성광장 옆 중앙역사박물관 입구 홀에 개점된 런광차집을 방문해 평양 유일 로펌 사장과 환담하는 일정이 포함돼 있다. 이 차집은 비엔나 커피숍으로 일컬어지기도 하며 오스트리아 사업가가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프라 측면에서 살펴보면 1984년 준공된 개선청년공원은 2010년 개  
 건되었으며 1959년도에 건립된 중앙동물원은 지난해인 2016년 제2  
 단계 공사를 마무리했다. 2010년대 들어 대표적인 위락 시설로 꼽히  
 고 있는 문수물놀이장은 2013년 들어섰으며 1984년 건설된 만경대물  
 놀이장은 2011년 리모델링을 거쳐 새로 영업을 시작했다. 이밖에  
 2012년 평양민속공원이 준공되어 관광상품에 포함되어 관광객을 맞  
 이했으나 2016년 철거됐다.<sup>23)</sup> 아울러 1995년 시작된 메아리사격관은  
 2014년 리모델링을 거쳐 재개관하였다.<sup>24)</sup> 메아리사격관이 관광상품  
 코스에 본격 포함된 것은 2010년대로, 중국 베이징청년여행사(北京青  
 年旅行社)의 4박5일 상품코스 설명에 따르면 실제 사격을 하고 잡은  
 오리는 즉석에서 요리까지 해준다고 한다.<sup>25)</sup>

2010년대 평양 위락관광자원의 또다른 특징은 체험적이면서 스포  
 츠적인 성격이 가미된 소재가 많이 대두했다는 점이다. 2013년 10월  
 건설된 미림승마구락부에서는 승마체험을 할 수 있고 2015년부터는

---

23) 평양민속공원은 평양 외곽 대성구역에 위치해 있는데 주체사상탑 등 각종 건축  
 물 모형, 야외 풍속박물관 등이 설치돼 있었다. 그러나 2016년 북한 국가관광총  
 국은 중국내 북한 전문여행사측에 내부 문제를 이유로 평양민속공원 관장이  
 불가하다고 알리고 새로운 관광일정으로 대체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이  
 는 공원 조성을 주도한 인물이 2013년 처형된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이어서  
 김정은 위원장이 불쾌해 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북, 평양 민속공원 대부  
 분 해체… ‘장성택 흔적 지우기,’” 『연합뉴스』, 2016년 11월 9일).

24) “북 김정은 관심 속 사격 인기몰이… 평양에 사격 열풍,” 『연합뉴스』 2014년  
 2월 17일.

25) 2010년대 들어 관광상품코스에 본격 들어가기 시작한 메아리사격관은 중국인  
 대상 상품이나 서구인 대상 상품 모두에 포함돼 있다. 중국여행사 중에서는  
 베이징청년여행사 상품 이외에도 중국청년여행사 산하여행사인 야오웨이(耀悅)  
 여행사, 돌고래여행사(海豚旅行) 상품에 포함돼 있다. 서구여행사 중에서는 영  
 파이오니어투어스(Young Pioneer Tours), 우리투어스(Uri tours) 상품 등에 포함  
 돼 있다.

미림항공구락부에서 운영하는 경비행기 관광을 할 수 있다.<sup>26)</sup> 고려투어스와 영파이오니어투어스 관광상품 안내자료에 따르면 헬기 관광도 할 수 있다고 한다. 평양 시내 자전거 체험도 2015년부터 새로 도입된 관광자원이다. 북한은 평양 시내에 그 해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였다. 그간 평양 이외 지역에서 자전거 투어가 진행된 적은 있었으나 시내에서 본격적인 자전거 투어가 시작된 것은 2010년대 들어서이다. 일부 여행사는 아예 ‘평양 City Bicycle’이란 관광상품을 출시하였는데 주요 코스는 해방거리와 미래과학자 거리에서 자전거를 타는 것이다. 이밖에 1981년부터 시작된 만경대상 국제마라톤대회에는 2014년부터 외국인 관광객도 참여가 가능해졌다. 매년 4월 열리는 이 대회를 활용해 다양한 관광상품이 출시되고 있으며 2016년에는 1000명이 넘는 외국인이 참가했다고 한다.

2010년대 관광자원 가운데 사회시스템 관광자원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협동농장 견학으로는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 참관이 새로 추가됐는데 이곳에서는 농장에 들어가 야채를 따는 체험을 할 수 있다.<sup>27)</sup> 평양 지하철역도 이전에는 1호선(천리마선)의 영광역, 승리역 등 몇 개 역만 외국인 관광객이 체험할 수 있도록 개방했으나 2014년도

---

26) 주요 코스는 대동강, 청춘거리 체육촌, 두루섬, 미래과학자거리, 주체사상탑, 김일성광장, 만수대대기념비, 노동당창건기념탑, 5월1일 경기장, 미림승마구락부,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 상공을 거친다. 40인승 여객기와 10인승 헬기, 3인승 또는 5인승 경비행기가 투입되며 약 40여 분이 소요된다(“평양 유람비행, 관광객들에 인기” <북한매체>,” 『연합뉴스』, 2015년 11월 20일).

27) 김정은 위원장은 2014년과 2015년 연이어 이곳을 방문해 “(1년 동안 변화된 것을 보고) 천지개벽된 농장을 보니… 농장이 21세기의 본보기, 표준으로 전변됐다”고 격찬하기도 했고 2016년에는 노동당 7차 대회 취재 차 방북한 외신기자 130여명에게도 공개하기도 했다(“북한 김정은, 평양 채소농장 격찬,” 『연합뉴스』, 2015년 6월 30일).

에는 2호선(혁신선)도 탑승 가능하도록 개방했다. 또한 평양 시내 무궤도전차와 일반 전차를 타고 도심을 이동하는 상품까지 등장했다. 이 밖에 2013년 신설된 평양국제축구학교는 2014년도부터 외국인에 건학이 개방됐다.

2010년대 관광자원은 전반적으로 그 변화의 폭과 양상이 과거와 크게 다르다. 우선 체제선전 관광자원이 기본으로 활용되고 있음은 여느 시대와 다르지 않지만 앞서 살펴 본 대로 관광객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요소를 최대한 가미하려 노력하였다. 외래관광객들의 방북 관광 유인의 첫 번째 요소는 북한 사회에 대한 호기심 등일 터인데 단순하고 직접적인 체제선전물은 관광적인 관점에서는 오히려 마이너스 요소라는 점에서 새로운 접근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폐쇄적인 국가일지라도 관광을 나서는 또다른 요인이 즐거움을 찾는 것이라 한다면 2010년대 평양의 변화는 적극적으로 그 방향으로 나아갔다고 평가 가능하다. 또한 앞서 2000년대 그 변화가 시작되었던 ‘들어가 보기’ 관광이 본격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외래관광객이 방문 가능한 지역이나 대상이 여전히 북한이 보여주고 싶어 하는 곳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비판은 가능하지만 북한의 제한된 시민들의 일상이나 마엣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평가가 가능한 지점이다. 북한 시민들과의 자연스런 접촉이 비교적 빈번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관광자원들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 살펴본다면 외래관광을 통한 외화수입창출을 적극 고려한 것으로도 보인다. 관광객들의 관광상품 구매 비용에서 외국 여행사들이 북한 당국에 지불하는 비용보다 오히려 외래관광객들이 북한 현지에 도착해 이용하는 각종 위락 시설물이나 식당, 쇼핑 등을 통한 외화수입 창출이 훨씬 더 크다는 점을 북한 당국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 4. 평양 관광자원의 변화와 북한 사회 변화

3절에서 살펴보았듯이 평양의 관광자원은 1980년대 이래로 관광 자원별 큰 폭의 비중 변화를 보였다고 할 수는 없다. 전반적으로 체제 선전 관광자원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시기별 관광자원의 미세한 변화가 없었던 것은 아니고 또한 이를 놓쳐서도 안 된다. 이러한 변화는 바로 북한 사회의 변화를 보여주는 한 징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나라가 강조하는 관광자원이란 의도하였든 의도하지 않았든 그 관광자원을 내포한 사회의 변화가 수반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관광자원의 변화는 관광객에게 인기 있는 관광지가 변화하는 것이고 이는 각 시대별로 관광객에게 소구력을 갖는 관광자원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지만<sup>28)</sup>, 북한과 같이 중앙 집중적이고 계획통제 사회에서 관광자원의 변화는 소비자의 반응에 응답한 것이라기보다는 북한 내부적인 판단, 즉 북한 스스로의 변화에 반응하여 제시하고 있는 성격이 보다 강할 수밖에 없다.<sup>29)</sup>

---

28) 여경진·주영민, “도시관광 자원 변화에 관한 연구: 1920년대 이후의 도교를 대상으로,” 『일본근대학연구』, 제40집(2013년 5월), 26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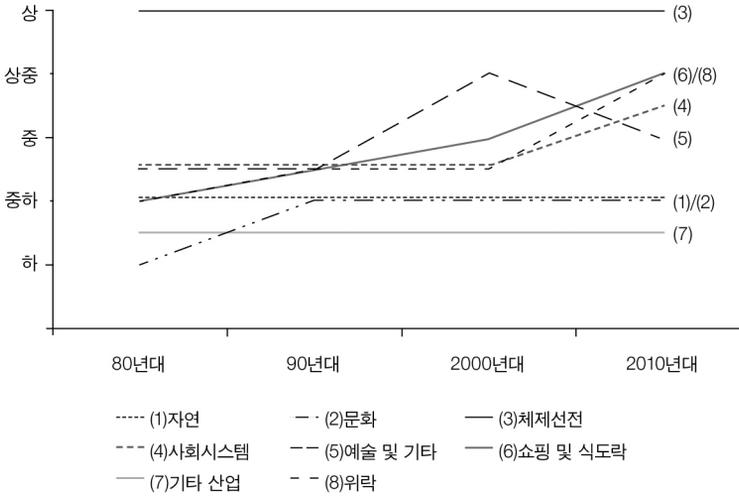
29) 이러한 특징은 북한에서 관광, 특히 외래관광 및 자원이 지닌 기능과 함의 등과도 연관 지어 볼 수 있다. 어느 나라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외래관광은 경제적으로는 외화수입창출이라는 기능을 하고 있으며 정치적으로는 체제선전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 이 체제선전은 대외적인 선전 이외에도 대내적인 선전 기능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외래관광과 그 자원은 사회적으로는 복리제 공이라는 기능으로 이어지기도 하며 사회문화 변화를 보여주는 징표로도 기능하기도 한다. 관광의 경제적인 기능과 정치적인 기능의 비중과 형태의 차이는 시기별로 다소 차이를 보인다.

## 1) 평양 관광자원의 시기별 비중 변화 평가

먼저 각 시기별 관광자원 안내책자 내용과 관광상품 구성 내용을 준거로 하여, 평양 관광자원의 시기별(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비중의 변화, 변화의 정도를 상-중상-중-중하-하 5단계로 정리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체제선전 관광자원은 어느 시대에서나 전체 관광자원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외래관광이 처음 본격 시작되었던 1980년대 출발선 자체가 달랐던 체제선전 관광자원은 각 시기별로 지속적으로 보완되고 보충되었다. 1990년대에는 당창건기념탑,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 푸에블로호, 2000년대에는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 김일성화김정일화전시관, 2010년대에는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등이 새로 들어서거나 개보수가 진행되었다. 또한 체제선전 관광자원은 실제 어느 시기 관광상품코스에서나 제일 많은 시간이 할애되어 방문되는 지역이기도 하다.

큰 변동이 없는 평양 관광자원의 시기별 비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2010년대에 나타난다. 쇼핑 및 식도락, 위락, 사회시스템 등 3개 관광자원의 비중 증가가 확연하다. 우선 쇼핑 및 식도락 관광자원은 1980년대만 하더라도 비중이 크지 않았다. 관광코스에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 힘들고 단순히 식사 정도 해결하는 수준에 그쳤다. 그러다 1990년대 들어 배식당 <평양1호>, 대성수출품전시장이 들어섰고 2000년대에는 통일거리시장과 월향전시관이 새로 쇼핑 및 식도락 관광자원으로 등장했다. 물론 기본적으로 관광을 위한 시설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북한 주민을 위한 시설이라는 기본 기능 이외에 외래관광객들도 방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쇼핑 및 식도락 관광자원의

<그림 1> 평양 관광자원의 시기별 비중의 변화(변화의 정도)



변화로 평가할 수 있다. 점차적으로 비중을 넓혀오던 쇼핑 및 식도락 관광자원의 큰 폭의 비중 증대는 2010년대에 들어와 이뤄졌다. 최고 급 복합상업시설과 식당들이 들어서 이제는 평양 관광에서 당당히 주요한 관광코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위락 관광자원도 쇼핑 및 식도락 관광자원과 마찬가지로 1980년대에는 그 비중이 ‘중하’ 정도에 머물렀으나 1990년대 들어 평양볼링관과 문수유희장 등이 들어서면서 서서히 그 비중을 늘려왔다. 그러다 2010년대 들어 큰 폭의 비중 증가 추세를 보였다. 각종 유희장이 리모델링 및 확장되었으며 마라톤, 비행기, 승마, 종합테마수영장 등 다양한 시설과 아이템으로 관광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이러한 관광자원이 북한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는 차치하고 이러한 관광자원의 변화는 충분히 적극적으로 평가할 가치가 있다.

사회시스템 관광자원도 2010년대 주목되는 변화를 보인 관광자원 가운데 하나이다. 사회시스템 관광자원은 1980년대에도 그 비중이 적지는 않았다. 관광상품 코스에는 만수대의사당이나 평양학생소년궁전, 인민대학습당, 평양지하철, 김일성종합대학 등의 사회시스템 관광자원 방문 및 체험이 적지 않게 포함돼 있어 체제선전 관광자원 다음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사회시스템 관광자원은 일종의 체제선전 효과도 노릴 수 있어 이러한 양태는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 다만 새로운 사회시스템 관광자원이 추가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2010년대 들어서야 평양국제축구학교, 장천남새산업협동농장 등이 새로 등장했고 평양 지하철 개방 폭이 확대됐다.

시기별 예술 및 기타 관광자원의 변화 폭도 비교적 작지는 않다. 예술 및 기타 관광자원의 1980년대 비중은 사회시스템 관광자원과 마찬가지로 체제선전 관광자원 다음의 비중을 갖고 있었다. 각종 예술 관련 시설물은 물론이고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등 그곳에서 이뤄지는 각종 공연은 북한이 관광상품 코스에 적극 포함시켜왔던 주요한 관광자원이었다. 2000년대 들어 그 비중이 크게 높아진 것은 아리랑 축전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아리랑축전은 북한이 2000년대 핵심적으로 강조한 관광자원 가운데 하나였다. 그러다 2013년 축전이 끝나면서 새로운 공연이 아직 본격 대두되지 않고 있어 2010년대 예술 및 기타 관광자원의 중요도는 다소 낮아졌다.

평양지역의 관광자원에서 자연 및 문화 관광자원은 비교적 낮은 비중을 보여 왔다. 자연 관광자원은 북한 전체 관광자원 측면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평양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각종 도시 인프라에 밀리면서 그 비중은 다른 관광자원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다. 아울러 문화재 등을 중심으로 한 문화 관광자원 또한

북한이 적극적으로 강조하고 있지는 않아 그 비중은 비교적 낮은 편이다. 다만 90년대 단군릉이나 동명왕릉이 조성되면서 비중이 다소 증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밖에 기타 산업 관광자원은 1980년대 이후 크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호텔 시설 등은 새로 건축되지 않고 기존 시설을 계속해서 활용하고 있으며 산업적 측면에서 새로운 시설이 조성되지 않고 있어 그 비중의 변화는 크지 않다.

## 2) 평양 관광자원의 변화와 북한 사회의 변화

평양 관광자원의 변화는 관광 측면에서 충분히 의미가 있지만 북한 사회 변화와의 관계 속에서 살펴본다면 더욱 그 의미가 두드러진다. 특히 관광자원의 변화 폭이 두드러지고 있는 2010년대에 초점을 맞춰 분석하면 그 의미는 더욱 명징해지는데 그 변화를 추동한 힘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010년대 평양 관광자원의 변화는 무엇보다도 정치부문의 변화와의 관계를 제외하고는 설명하기 힘들다. 김정은 위원장이 권력을 공식적으로 승계 받으면서 기존 김일성, 김정일 시대와는 결이 다른 부분이 발생하고 있다. 북한이 아무리 권력세습 국가라 하더라도 20대에 권력을 물려받은 김정은 위원장으로서 권력 승계의 정당성, 당 위성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은 어느 국가와 다르지 않다.<sup>30)</sup> 20~30년

---

30) 실제 2012년 외부 언론과 전화통화한 북한 내부 주민의 평가는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북한 사회의 평가가 어떠한지 여실히 보여준다. 김정은 위원장이 공식 석상에 등장한 2010년 여름에 진행된 인터뷰에서 당 간부로 알려진 인물은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나 같은 사람이라도 26, 27살짜리라고 하면 우습게 보겠는데요. 아직 어리니까.”라며 알보고 있다. 2012년 12월에 인터뷰에 응한 다른 북한 주민은 “‘장군님’이라고 다 하긴 하는가?”란 질문에 “장군님이라

가까이 권력투쟁 속에서 후계자수업을 받아 안정적인 권력 기반을 갖고 있었으면서도 김일성 사후 3년간이나 유훈통치를 실시하였던 김정일 위원장에 비해 김정은은 턱없이 부족한 권력 기반과 시간을 갖고 있을 뿐이었다. 김정일 위원장은 2008년 쓰러진 뒤 2009년부터 후계구도 정립을 본격화하였고 2010년 9월 28일 제3차 노동당 대표자회의에서야 김정은을 공식 석상에 중앙군사위원회 제1부위원장 직책으로 등장시켰으며 2011년 12월 사망하였으니 김정은은 권력기반을 닦을 충분한 시간적, 물리적 기반이 넉넉하지 못했다.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으로서 자신의 권력 승계를 정당화하기 위해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었다. 우선 김일성 사후 김정일 위원장이 하였던 것처럼 ‘유훈정치’에 기반하여 정통성을 강조하였다. 김정일의 자리에 김정은을 순치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권력 이양을 정당화한 것이다. 또한 북한의 독특한 정치문화 속에서 만경대 혈통을 이어받았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정당성을 확보하려 하였다.

아울러 김정은 식의 미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압축적인 권력승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해야 했다. 변화와 파격행보를 통해 자신만의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구축하고자 했고 새로운 이미지를 연출하려 했다.<sup>31)</sup> ‘스킨십 정치’, ‘유희장 정치’,

---

안 하면 글썽... 아니하면 죽이겠는데 어찌오... 20살짜리 무슨 걸 안다고...”라고 하였으며 이듬해인 2013년 2월 또 다른 도시주민은 전화통화에서 “아들(아이)이 무슨... 나이 어린 게 무슨 그게 잘한다고 볼 수도 없고”라며 호칭도 낮춰 부르고 있다[강동완·김현정, “김정은 정권에 대한 북한주민의 평가 및 사회 변화 실태 연구: 『북조선내부영상·문서자료집』 분석을 중심으로,” 『동북아연구』, 제31권 1호(2016), 123~127쪽].

31) 전영선, “김정은의 문화정치,” 『북한연구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2014), 146~154쪽; 이성춘·박동훈, “김정은체제 정당성 원천에 관한 연구,” 『한국동북아논총』, 제20권 4호 통권77집(2015), 88~89쪽.

‘애민 정치’, ‘친서민적인 이미지 구축’ 등은 모두 이러한 새로운 비전 제시, 새로운 이미지 연출, 자신만의 카리스마 리더십 구축의 일환으로 등장한 용어다. 실제 김정은 위원장은 2017년 신년사에서 “우리 인민을 어떻게 하면 신성히 더 높이 떠받을수 있겠는가 하는 근심으로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언제나 늘 마음뿐이었고 능력이 따라서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자책속에 지난 한해를 보냈는데… 우리 인민을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인민의 참된 충복, 충실한 심부름꾼이 될것”<sup>32)</sup> 이라고 말하는 등 이례적인 모습을 보였다. 김일성, 김정일 시대와는 다른 애민 의식을 보임으로써 자신만의 리더십을 구축하려는 의도라는 평가가 가능하다.

2010년대 북한의 관광자원이 위락 관광자원, 쇼핑 및 식도락 관광자원 중심으로 관광인프라가 크게 확충된 것은 이러한 김정은 위원장의 권력 정당화를 위한 노력의 흐름 속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분석된다.<sup>33)</sup> 인바운드 관광인프라가 외래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유일한 목적으로 구축되는 경우는 없다. 국내관광, 국내사회 인프라가 확충되면서 구축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북한도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 권력의 정당성을 보여주기 위해 국내 도시기반 인프라를 갖추면서 새롭게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프라가 확충되었던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또한 그 인프라를 통해 젊은 지도자의 이미지를 보

32) “신년사,” 『로동신문』, 2017년 1월 1일.

33) 이와 관련해 정유석(2016)은 김정은 위원장이 위락시설 건설과 레저문화 확산을 통해 어린 나이에서 비롯되는 불안정한 권력 안정화, 장성택 숙청 등 공포정치에서 비롯되는 불안감 불식, 관광객 확보를 통한 외화벌이와 경제 안정, 인민이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시설 제공을 통한 민심 확보 등을 노렸다고 분석한다 [정유석, “김정은의 현지지도와 관광정책,” 『통일문제연구』, 제28권 2호(2016), 176쪽].

여주고자 하는 의도도 갖고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물론 이러한 인프라를 갖추었다고 해서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할 것이냐는 다른 문제일 수 있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에게 있어 이러한 인프라를 순전히 국내 치적용 선전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외래 관광객 유치용으로까지 확장 활용한다면 권력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더 큰 이득이라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관광자원화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일종의 북한식 ‘관광정치’인 셈이다. 중국인과 서구인 등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평양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치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인프라 관광에 나선다면 북한 인민으로서는 새로운 ‘변화’를 눈앞에서 확인하는 셈이 된다. 해외 문물을 체험한 젊은 지도자가 불러오는 북한의 ‘참신한 변화’가 구체적인 형태로 각인되는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 프로농구 선수 출신 데니스 로드맨을 2013년과 2014년 북한에 초청해 만나기도 했고 2013년에는 구글 슈미트 회장이 방북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은 ‘국제적인 감각을 갖춘’ 지도자란 이미지 연출을 할 수 있었는데 외래관광객 유치 또한 유사한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장치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외래관광객 유치와 새로운 관광자원 구축은 체제 안정과 체제 선전 차원에서 효과적이기도 하다. 북한 주민들은 외래 관광객이 찾아오는 모습을 통해 북한 체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국제적인 고립에 처한 것이 아니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 국제사회에 대한 북한 체제 선전 차원에서도 새로운 관광자원을 이용한 외래 관광객 유치는 탁월하다. 북한은 외래관광객 유치는 체제 선전에 있어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을 공공연히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사회주의 관광업과 자본주의 관광업의 차이로 설명하고 있다. 즉 “사회주의 관광업은...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내외에 널리 선전하며 세계 여러

나라 인민들과의 교류와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관광업은 대외선전사업의 한 형태”라고 강조하고 있다.<sup>34)</sup> 게다가 외래관광객들이 느끼는 북한의 변화는 실시간으로 SNS 등을 통해 해외에 전파가 된다는 점에서 과거보다 체제선전효과는 더욱 클 수 있다.<sup>35)</sup>

물론 북한과 같은 통제사회에서는 외래관광객 유치와 같은 개방은 양날의 칼일 수 있다. 권력의 정당성 확보를 통한 체제 안정, 체제선전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반대로 외래 사조와 문물의 유입으로 인한 체제 불안정을 야기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동전의 양면과 같은 상황은 김정은 시대 들어와 다소 열린 것으로 보인다. 임계점을 넘어서지만 않는다면 개방이 꼭 체제불안과 등치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1990년대에 외래관광에 대한 통제는 이중통제형태였다. 즉 관광분야에서 계획은 액상지표와 물적지표 두 가지로 수립되는데 액상지표란 관광수입을 의미하고 물적지표란 관광객수를 의미한다. 계획을 수립하고 승인하는 기관도 다른데 관광수입은 당연히 많이 거두려 하지만 관광객수는 관리 측면에서 통제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에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었다. 하지만 2000년대 후반부터는 이러한 관광객수 제한을 강조하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됐고 2010년대 이후에는 김정은 위원장은 오히려 100만명 관광객 유치 교시까지 내렸다고 한다.<sup>36)</sup> 이러한 변화의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외부 문화의 유입이 활

---

34) 전영명, “사회주의관광업의 본질적특징과 역할,”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제61권 제1호(2015), 66쪽.

35) 김한규, “북한 외래관광 연구,” 211쪽.

36) 김한규, “북한 외래관광 조직의 구조와 특성에 관한 연구: 경제구조 변화의 반영을 중심으로,” 『북한학연구』, 11권 2호(2015), 47, 63~68쪽.

성화되면서 이념·사상적 통일성이 균열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바로 체제변혁의 방향으로 향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다. 체제에 헌신하고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반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의 현실 속 생계 문제이기 때문이다.<sup>37)</sup> 사회시스템 관광자원 또한 그 폭이 보다 넓어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북한 주민과 외래관광객간의 접촉과 교류는 자연스럽게 확대될 수밖에 없지만 북한 당국이 일정부분 허용하고 있는 배경에는 바로 이러한 판단이 내재돼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다음으로 위락 관광자원, 쇼핑 및 식도락 관광자원이 점차 폭넓게 확충된 데에는 경제적인 배경 또한 자리하고 있다. 외래관광은 일반적으로 외화수입 창출에 기여하게 되는데 여타 산업보다 외화가득률이 더 높게 나오고 있다.<sup>38)</sup> 북한에 있어 외화의 필요성은 여타 국가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외화를 창출할 수 있는 외래관광의 중요성 또한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외화 필요성이 더 높은 이유는 핵무기 개발 등으로 각종 경제제재를 받고 있고 경제개발을 위한 내부 자원이 고갈돼 있는 북한으로서는 경제성장을 위해 외적 수혈, 즉 외화의 필요성이 어느 국가보다 더 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단일 국민경제 구조가 붕괴되어 있는 북한에서 각 기관마다 자력갱생하기 위해 예산수입 창출에 노력하고 있는데 관광업은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좋은 소재 가운데 하나이다. 북한도 “사회주의관광업은 나라의 재정예산수입을 보장하는데서도 일정한 작용을 한다”

37) 이우영, “북한의 사회정책과 인민 생활,” 『통일경제』, 47권 1호(2012), 26쪽.

38) 북한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 견주어 분석해 보았을 때 2008년 기준 관광산업의 외화가득률은 83.3%로 전 산업의 평균 73.1%, 제조업 평균 59.5%도 모두 높게 나왔다[이강욱, 『관광산업의 경제 효과 분석: 2009년 산업연관표 기준』(서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1), 48쪽].

면서 관광업을 통한 예산수입 벌이에 대해 잘 인식하고 있다.<sup>39)</sup>

한편 외래관광객 유치를 통한 외화수입 창출 극대화는 단순히 자연관광이나 체제선전물 참관 같은 형태의 관광으로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관광객을 송객하는 외국 여행사로부터 받는 1인당 관광 경비수입 이외에 현지 체류하면서 다양한 소비지출을 유도하여 수입을 창출하고자 하는 것은 어느 국가나 마찬가지이다.<sup>40)</sup> 그러한 소비 지출을 유도하는 데 있어 쇼핑과 식음료, 테마파크나 오락체험 등의 위락시설 이용은 가장 보편적이면서 효과적인 수단 가운데 하나이다. 북한과 직접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단체관광 형태로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래객의 2015년도 지출경비 구성을 살펴보면 쇼핑비 69.0%, 본인 거주국 지불경비 27.4%, 식음료비 2.7%, 오락관련지출 0.3% 등으로 집계됐다.<sup>41)</sup> 외래관광객이 보다 많은 소비를 하게끔 유도하기 위해서는 쇼핑과 식음료, 오락 부분이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2009년 외래관광객 실태 결과를 산업분류에 맞게 관광산업 항목별로 구분하여 파급효과를 측정한 결과에 따르면 소매업(관광쇼핑) 34.5%, 식음료 18%, 숙박업 30.5%, 관광교통 5%, 오락 및 유흥 4.5% 등으로 조사됐다.<sup>42)</sup>

---

39) 전영명, “사회주의관광업의 본질적특징과 역할,” 67~68쪽.

40) 북한관광가격은 2014년 현재 1인 1박당 1급호텔은 중국 관광객을 기준으로 420위안이고 특급호텔은 550위안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고정가격제도는 사회주의 국가의 일반적인 형태이다(김한규, “북한 외래관광 조직의 구조와 특성에 관한 연구,” 58쪽).

41) 문화체육관광부, 『2015 외래관광객 실태조사』(서울: 문화체육관광부, 2016), 193쪽. 이밖에 지출 항목으로는 교통비, 한국여행사지불비, 문화관련지출, 운동관련지출, 기타비용 순으로 나타났다.

42) 이강욱, 『관광산업의 경제효과 분석』, 62~63쪽. 이밖에 다른 항목으로는 운수 보조업, 차량임대업, 여행업, 문화예술공연, 운동경기, 기타 등이 있다.

이러한 상황은 어느 나라나 유사할 것이고 북한이라고 다르지 않을 것이다. 특히 숙박, 교통 비용이 이미 본인 거주국 지불경비에 포함돼 있는 북한으로서는 쇼핑과 식도락, 위락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 높을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보다 많은 외화수입을 창출하기 위해 관련 관광자원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평양 관광자원의 변화는 북한 사회의 전반적인 변화와도 맞물려 있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으로 대변되는 9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으로 인해 배급제를 비롯한 계획경제구조가 붕괴되면서 북한 정권은 일반 시민들의 시장을 통한 자력갱생을 일정 부분이나마 비공식적으로 허용한다.<sup>43)</sup> 북한은 또한 2000년대 들어와 7.1경제관리개선조치로 대변되는 경제개혁조치를 실행하면서 시장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체제 안으로 끌어들이게 된다. ‘계획과 시장이 공존하는 북한식 이중경제구조’가 시작된 것이다.<sup>44)</sup> 이후 북한 정부는 시장화를 촉진하고 억제하는 정책 사이를 왔다갔다하는 ‘갈지자’ 행보를 보이지만 시장화의 큰 흐름을 거스르지는 않고 있다.

계획의 공간에서 벗어난 시장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북한 정부로서는 북한 사회의 경제적 잉여를 수탈할 수 있는 새로운 예산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는 반면 민간에서는 시장을 통해 부를 창출하고 정권과의 유착을 통해 부를 집적한 새로운 사회 계층이 탄생한다는 의미도 있다. 실제 상당수의 북한 주민들은 시장에서의 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고<sup>45)</sup> 그러면서 ‘돈주’라고 불리는 신흥 계층이

---

43) 1990년대 경제위기의 원인에 대해서는 외부적 충격과 내부적 충격으로 나누어 분석한 김석진(2002) 참조[김석진, “북한경제의 성장과 위기: 실적과 전망,”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02), 232~280쪽].

44) 양문수, 『북한경제의 시장화: 양태·성격·메커니즘·함의』(과주: 한울아카데미, 2010), 제2장 ‘계획과 시장의 공존: 북한식 이중경제구조의 특징’ 참조.

<표 9> 2010년대 평양 관광자원 변화의 북한 사회 변화 측면에서의 의미

구분	내용
정치적 측면	- 김정은의 권력 정당성 확보 노력의 일환 (애민의식, 새로운 미래 비전 제시하는 젊은 지도자, 국제적인 감각을 갖춘 지도자란 이미지 각인) - 대내적으로 체제 안정에 대한 믿음 부여 - 대외적으로 체제 선전 기회 제공
경제적 측면	- 국제 경제제재 속 외화가득률 높은 관광 활성화 통해 외화수입 창출 - 각 기관별 자력갱생하기 위한 예산 수입 창출 - 보다 많은 관광소비지출 유도하기 위한 맞춤형 관광자원 확충
사회적 측면	- 계획경제구조 붕괴 속 탄생한 신흥 사회계층의 욕구에 일정부분 부응 - 정권의 일반 시민 생활문화 주도권 유지 수단 - 외래 관광객의 북한 주민 간의 접촉면 확대

탄생하고 있다. 이러한 신흥계층은 자본이 충분한 만큼 ‘높은 생활 수준’을 영위하려는 양태가 생기고 있다. 물론 이들이 현재 북한 정권에 위협이 되는 정도의 권력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북한 당국으로서도 무조건 통제하거나 억제할 수만은 없고 그들의 욕구에 일부분 부응하려 하고 있다.<sup>45)</sup> 그러면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주도해 나가 생활문화의 주도권을 빼가지 않으려는 의도를 내비치고 있다고도 분석 가능하다.<sup>47)</sup> 이러한 차원에서 북한은 해당화관이나 해맞이식

45) 2014년 탈북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09년 이후 2014년까지 장사경험이 있는 탈북자는 70% 정도로 유지되고 있다(김병로, “탈북자 면접조사를 통해 본 최근 북한사회의 변화,” 『북한연구학회보』, 제18권 제2호(2014), 153쪽).

46) 북한은 ‘강한 국가와 미발전의 사회’였으나 최근 시장의 발전으로 그동안 국가에 포섭되었던 사회의 활성화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로 인한 신흥계층은 아직 권력을 뛰어넘는 세력으로 등장하지는 못하고 있다. 향후 이러한 변화가 강한 국가를 더욱 강하게 할지 아니면 국가에 대항한 사회의 병립을 가져올지에 대한 분석은 정영철(2014) 참조(정영철, “북한에서의 국가와 시장 그리고 사회의 발견,” 『한국과 국제정치』, 30권 1호(2014)).

당, 해맞이슈퍼마켓 등의 고급 음식점과 각종 경비행기 관광, 승마체험, 문수물놀이장 등 세련된 위락 시설을 마련했다고도 볼 수 있다. 이들 시설들의 이용 가격은 일반 북한 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턱없이 비싸 이용이 불가능하고 신흥계층이나 권력층 정도나 이용 가능하다.<sup>48)</sup> 물론 그러면서 외래관광객들 또한 같이 이용하게 되는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도표로 정리하면 <표 9>와 같다.

## 5. 맺음말

북한이 외래관광에 본격 나선지도 이제 30년이 흘러가고 있다. 그리고 각 시기마다 외래관광에 활용되는 관광자원은 미묘하게나마 변화가 감지된다. 특히나 그 변화는 2010년대 들어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북한의 학계에서 구분짓는 관광자원의 유형을 살펴보고 관광자원의 변화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유형을 설정한 뒤 각 시기별 평양 관광자원의 변화를 고찰하였다. 또한 그 변화가

---

47) 이러한 분석 방식은 모란봉악단의 변화를 해석하는 방식에서 차용한 것이다. 모란봉악단은 북한의 기존 악단과는 달리 많은 파격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 미니스커트 등의 과감한 의상, 미키마우스와 록키 주제가 등을 활용한 배경 화면 및 음악 구성 등이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강동완·박정란은 북한 주민 상당수가 이미 한국 영상물 등 외부 정보를 많이 접하고 있으면서 대중적 문화 욕구가 높아지고 있는데 북한 정부는 이에 부응해야 할 뿐 아니라 문화적으로 주도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분석한다[강동완·박정란, “김정은의 ‘열린 음악정치’: 모란봉악단 공연을 통해서 본 북한,” 『김정은에게 북한의 미래를 묻다』(서울: 선인, 2014), 212쪽].

48) 해당화관의 경우 두 명이 갈 경우 보통 50~100달러는 쉽게 쓴다고 한다(“[주성하 기자의 서울과 평양사이] 인기 끄는 평양의 데이트 코스는,” 『동아일보』, 2015년 11월 5일).

추동된 배경은 무엇인지 2010년대를 중심으로 해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시각에서 분석하였다.

관광자원의 유형은 △자연 관광자원 △문화 관광자원 △체제선전 관광자원 △사회시스템 관광자원 △예술 및 기타 관광자원 △쇼핑 및 식도락 관광자원 △기타 산업 관광자원 △위락 관광자원으로 구분하였다. 평양 지역 관광자원에서 기본적으로 체제선전 관광자원은 어느 시기에서나 핵심적인 관광자원으로 활용되었으며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북한이 내세우는 평양지역 관광자원은 고정불변은 아니었다. 점차적으로 쇼핑 및 식도락 관광자원과 위락 관광자원의 활용도가 증가했으며 사회시스템 관광자원 또한 증가추세를 보였다.

특히 2010년대에는 이러한 변화가 눈에 띄게 확연히 증가했는데 그러한 변화의 배경으로는 무엇보다도 김정은 체제 등장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체제 정당성과 당위성을 보여주어서 권력의 안정화를 도모해야 하는 젊은 지도자 김정은은 자신만의 미래 비전을 보여주기 위해 애민 정치, 친서민적 이미지 구축을 시도했고 그 일환으로 위락관광자원과 쇼핑 및 식도락 관광자원 인프라 구축에 적극 나섰다. 또한 이러한 인프라를 외래관광객 유치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평양 시내를 돌아다니는’ 외국인은 다시 김정은 체제 안정에 기여하는 효과를 불러올 수 있었을 것이다. 물론 북한과 같은 통제사회에서 외래관광객 유치는 양날의 칼일 수 있지만 김정은 체제에서는 이러한 상황은 다소 열린 것으로 보여진다.

아울러 쇼핑 및 식도락 관광자원과 위락 관광자원은 같은 관광자원 중에서도 더 많은 외화수입 창출이 가능하기에 다른 관광자원보다 강조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돈주 등 새로이 등장한 신흥계층의 욕구에 일정부분이나마 부응하기 위해,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받아 안

기 위해 이러한 관광자원이 적극 구축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관광자원의 변화는 주의 깊게 관찰해야 보여지는 것일 수 있지만 단순히 관광차원에서만 의미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 사회의 변화를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훌륭한 소재로 활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2010년대 북한 관광자원의 변화를 추동한 정권의 의도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는가. 관광자원의 변화로 김정은의 권력 정당성은 일정 부분 확보되었는지, 보다 많은 외화 수입이 창출되었는지, 신형 사회계층의 욕구에 일정부분 부응하여 이들의 정권에 대한 충성도를 높일 수 있었는지 등은 또 다른 주요 분석 지점이 아닐 수 없다. 본 글에서는 자료의 한계 등으로 다루지 못하였으나 향후 본격적으로 다뤄져야 하는 주제일 것이다.

아울러 관광자원의 변화는 언제나 북한 사회의 변화를 받아 안는 ‘수동적인’ 역할에만 머무르는 것인가. 변화를 받는 것이 아니라 북한 사회에 변화를 야기하는 ‘적극적인’ 변수 역할을 할 가능성은 없다. 이 글에서는 다루지 못하였으나 관광자원의 변화가 북한 사회에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은 충분하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외래관광과 국내관광이 맞닿는 지점에서 더욱 큰 변화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아직 국내학계에서 북한의 국내관광에 대한 연구는 첫걸음조차 떼지 못한 상황이지만 북한의 계층 변화 등으로 인해 이제 연구 성과를 내놓을 수 있는 기반이 닦이고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북한의 국내관광 연구는 시장화 등이 초래하는 북한 사회 변화 연구와 연관 지어 분석할 수 있는 좋은 소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한편 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고찰했다는 한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물론 북한 관광에서 평양 관광이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은 절대적이긴 하지만 최근 들어 북한은 전역에 걸쳐 경제개발구가

들어서고 있고 그 경제개발구의 중요 꼭지로 관광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차제에는 연구 범위를 평양을 넘어서 북한 전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 접수: 3월 13일 / 수정: 4월 13일 / 채택: 4월 15일

## 참고문헌

### 1. 북한 자료

#### 1) 단행본

국가관광총국, 『조선관광안내』(평양: 관광선전사, 2002).

#### 2) 논문

김광협, “관광통계자료의 분류,” 『경제연구』, 제3호(2016).

김인정, “관광자원의 본질과 특성,” 『경제연구』, 제3호(2015).

박명순, “관광자원개발리용에 대한 통계적연구에서 나서는 몇 가지 문제,” 『경제연구』, 제3호(2015).

전영명, “사회주의관광업의 본질적특징과 역할,”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제61권 제1호(2015).

#### 3) 신문

『로동신문』.

### 2. 국내 자료

#### 1) 단행본

김병용, 『관광학원론』, 개정판(서울: 한울, 2012).

김영봉·이문원·조진철, 『북한관광자원의 효율적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북한 관광시범사업의 협력적 추진방안』(경기: 국토연구원, 2006).

김창곤·신동주·지봉구·홍창식, 『관광학원론』(서울: 대왕사, 2013).

김천중·임화순, 『관광상품론: 관광상품의 기획과 마케팅 사례』(서울: 학문사, 1999).

문화체육관광부, 『2015 외래관광객 실태조사』(서울: 문화체육관광부, 2016).

신용석, 『남북관광 현황분석 및 정책대응방안』(서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2).

안대희·고종원·최승국·안범용·류기환, 『관광자원론』, 제2판(서울: 대왕사, 2014).

양문수, 『북한경제의 시장화: 양태·성격·메커니즘·함의』,(과주: 한올아카데미, 2010).

이강욱, 『관광산업의 경제효과 분석: 2009년 산업연관표 기준』(서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1).

이근, 『신관광자원론』(서울: 학문사, 1996).

정익준·이상춘·문성열·김미경, 『관광학의 이해』(서울: 형설출판사, 2000).

한국관광공사, 『북한 관광자원』(서울: 한국관광공사, 2004).

## 2) 논문

강동완·김현정, “김정은 정권에 대한 북한주민의 평가 및 사회 변화 실태 연구: 『북조선내부영상·문서자료집』 분석을 중심으로,” 『동북아연구』, 제31권 1호(2016).

강동완·박정란, “김정은의 ‘열린 음악정치’: 모란봉악단 공연을 통해서 본 북한,” 『김정은에게 북한의 미래를 묻다』(서울: 선인, 2014).

김도영, “북한관광상품개발에 관한 연구: 관광자원을 중심으로,” 『호텔·리조트 연구』, 제4권 1호(2005).

김병로, “탈북자 면접조사를 통해 본 최근 북한사회의 변화,” 『북한연구학회보』, 제18권 제2호(2014).

김석진, “북한경제의 성장과 위기: 실적과 전망”(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김한규, “북한 외래관광 연구: 담당조직과 유치 구조 및 전략을 중심으로”(북한 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_\_\_\_\_, “북한 외래관광 조직의 구조와 특성에 관한 연구: 경제구조 변화의 반영을 중심으로,” 『북한학연구』, 11권 2호(2015).

여경진·주영민, “도시관광 자원 변화에 관한 연구: 1920년대 이후의 도교를 대상으로,” 『일본근대학연구』, 제40집(2013년 5월).

이성춘·박동훈, “김정은체제 정당성 원천에 관한 연구,” 『한국동북아논총』, 제20

권 4호 통권 77집(2015).

이우영, “북한의 사회정책과 인민 생활,” 『통일경제』, 47권 1호(2012).

전영선, “김정은의 문화정치,” 『북한연구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2014).

정영철, “북한에서의 국가와 시장 그리고 사회의 발견,” 『한국과 국제정치』, 30권 1호(2014).

정유석, “김정은의 현지도와 관광정책,” 『통일문제연구』, 제28권 2호(2016).

조명환, “관광상품의 구성요소에 관한 연구,” 『관광·레저연구』, 제8권 제1호(1996).

한상현, “관광자원의 상품화,” 한국관광학회 위음, 『관광학총론』(서울: 대왕사, 2009).

황창훈·박명희, “관광상품의 매력성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경제경영연구』, 제8권 제1호(2007).

### 3) 신문

『동아일보』.

『연합뉴스』.

## 3. 국외 자료

### 1) 단행본

國家觀光總局, 『朝鮮旅游』(平壤: 旅游宣傳社, 2012).

朝鮮觀光案內編輯部, 『朝鮮觀光案內』(東京: 朝鮮新報社, 1990).

馬蜂窩, 『朝鮮』(北京: 馬蜂窩, 2015).

窮游, 『朝鮮』(北京: 窮游, 2016).

# A Research on Changes in Tourism Resources in the Pyeongyang Region of North Korea: In the Focus of Connection with Changes of North Korean Society

Kim, Han Gyu(Korea Tourism Organization)

This research aims to study changes in tourism resources in the Pyeongyang region of North Korea and to analyze the ground of the changes in connection with the transition of the North Korean society. First, the categories of tourism resources are being identified which could indicate changes of it. Tourism resources are being classified into natural resources, cultural resources, resources with propaganda system, society system, art and other social resources, shopping and epicurism resources, industrial and recreational resources. Changes in each decade starting from 80s to 2010s are also being studied. The result of the study suggests that tourism resources with propaganda system has been used as core regardless of time period taking up the greatest portion

of all other resources. However, the North Korea gradually started to make more use of shopping and epicurism resources and recreational ones as well as the social system resources. In 2010, changes became more visible which is assumingly resulted by Kim Jeong Eun's regime. In need of legitimacy of the power, the regime has been trying to show its future vision through politics for people and common people friendly images. In line with it, the regime initiated the building of the infrastructures of recreational and shopping and epicurism tourism resources which was aimed to lure foreign tourists to Pyeongyang. Foreign tourists walking in Pyeongyang could surely make contributions to the regime stability. In a closed society like the North Korea, attracting of foreign tourists could be a double wedged weapon. However, disadvantages seem to have been minor in the Kim's regime. Foreign currency brought up by shopping, epicurism and recreational resources could be one the of reasons why they are being put more emphasis on. Changes in tourism resources could be revealed through inspective observation and the study of it no longer has significance just in the field of tourism resources but in understanding of changes in the country's changes themselves.

Keywords: North Korean Tourism, North Korean outbound tourism, Kim Jeong-eun's regime, politics for people, tourism resources in the Pyeongyang region